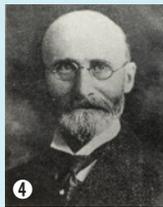


근대조명 - 제2전등소와 창덕궁(昌德宮)의 전기점등③



전등소는 영어의 'Electric light plant'를 뜻하는 '전기등기관소(電氣燈機關所)'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기 발전소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미 전 호에서 밝혔다. 경복궁 건청궁 향원지(香園池) 옆에 세워진 전등소가 제1전등소라면 경복궁 북동쪽 삼청동 소재의 비어있던 병기창(兵器廠) 건물에 세워진 전등소가 제2전등소이다. 제2전등소는 당초 경복궁 건청궁의 제1전등소 자리에 설비를 확충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비 규모가 크고 전등소의 소음과 경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자리를 옮겨 설치하게 되었다. 경복궁의 제1전등소 발전용량이 적어 원활한 전기 공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별도로 창덕궁전화계획(昌德宮電化計劃)을 수립하여 새로운 전등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창덕궁은 1405년(태종 5년) 조선왕조의 이궁(離宮; 태자궁, 세자궁의 총칭)으로 지은 궁궐이다.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이웃한 창경궁(昌慶宮)과 더불어 동궐(東闕)이라 불렀으며,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타자 광해군 때에 다시 짓고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정궁(正宮)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곳이기도 하다.

1892년 조선정부는 전등소의 설비증강과 창덕궁의 전기등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전등교사(電燈敎師) 파워(Thomas W. Power, 巴窩)를 미국에 보내 전등소 설비 일체를 구매토록 하였다. 파워는 1887년 3월 8일 전임 전등교사 맥케이의 죽음으로 전등사업이 일시 중단된 후 새로운 외국인 전등교사 피어(Pyrie, 費)와 포사이스(Forsyth, 鎬士義瑞), 페인(Payne, 佩仁) 다음으로 조선에 고용(僱聘)된 인물이다.

전등교사의 잦은 교체는 맥케이 사망 이후 높은 급료와 비싼 연료비,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자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전등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파워는 당시 미국 총영사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의 도움으로 조선의 전등교사로 고용되었는데, 알렌은 파워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의 쉐어햄(Shareham) 호텔의 전기설비를 시공한 점과 유능한 전기기술자였음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추천했던 것이다.

제2전등소는 미국인 전등교사 파워의 주도하에 1894년 5월 30일 준공되었다. 당시 발전설비를 보면 종전 경복궁 건청궁에 세워진 제1전등소의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80마력의 증기보일러 3대, 100마력의 증기엔진 2대, 16축광 백열등 500개를 점등하거나 250A를 발전할 수 있는 125V 직류발전기 4대, 높이 8피트, 너비 10피트의 배전반으로써 백열등 2,000개를 켤 수 있는 대형 발전설비를 갖추게 되었다.¹⁾

사진 1 전등가설 당시의 경복궁 전경,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25쪽

사진 2 창덕궁의 전등,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93쪽

사진 3 경복궁 건청궁에 설치된 발전설비와 같은 형식의 에디슨 발전기(뉴욕 콘 에디슨전기회사 소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25쪽

사진 4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공사(公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79쪽 * 미국의 의사로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었다. 고종 황제의 시의(侍醫) 및 외교 고문으로 있었으며, 광혜원(관립 의학교)을 창립하였다. 조선의 전기사업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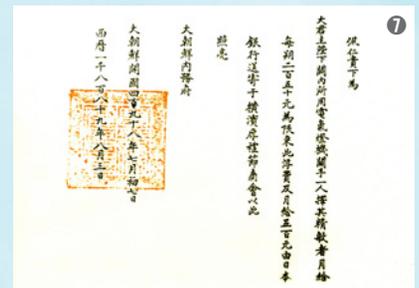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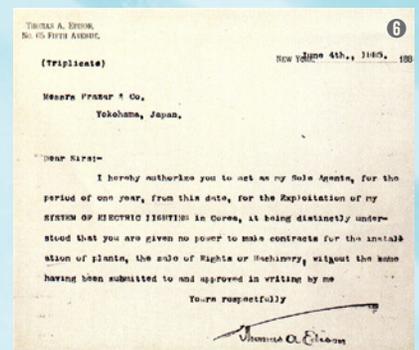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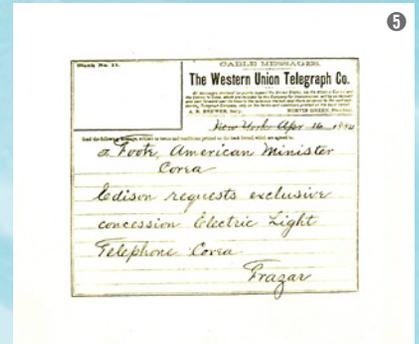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92쪽

물론 궁궐 내의 조명을 위한 설비이긴 했지만, 새로운 전등소가 가동됨에 따라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과 선정전(宣政殿), 그리고 왕의 편전인 희정당(熙政堂), 대조전(大造殿) 등 궁궐의 주요 전각에 여러 전등이 설치된 것이다. 당시 고종은 창덕궁의 전기점등과 때를 맞추어 창덕궁에 잠시 이어(移御)하였다가[고종 31년 4월 3일, 양력 1894년 5월 7일] 그해 5월 23일[양력 6월 26일] 경복궁으로 환궁했다는 기록이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전한다.²⁾ 고종의 창덕궁 이어 및 그곳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황현(黃玗, 1855~1910)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월에 왕(고종)이 낮잠을 자다가 광화문(光化門)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크게 놀라 잠에서 깬 다음 이를 몹시 꺼렸다. 2월에 창덕궁에 이어(移御)하면서 동궁(東宮; 세자궁)을 수리하였는데, 때마침 남경(南警; 동학란)이 하루가 급한데도 토목의 역사(役事)에 더욱 열을 올렸다. 매일 밤 전등을 켜고 광대를 불러 새로운 소리인 농염한 곡(新聲艷曲)을 연주케 하였는데, 이를 아리랑타령(阿里娘打令)이라고 하였다. 타령은 곡을 연주하는 것을 세속에서 이르는 말이다. 원임각신(原任閣臣) 민영주(閔泳柱)는 여러 광대들을 거느리고 오로지 아리랑을 관장하면서 그 솜씨의 우열을 평가하여 상방(尙方; 궁정의 의약)을 맡은 곳에 금을 하사하여 상을 주었다. 이러한 일은 일본공사 오오도리(大鳥圭介)가 범궐(犯闕; 오오도리가 1894년 6월 26일, 고종에게 알현을 강청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한 일)한 뒤에 중지되었다.”³⁾

물론 《매천야록》의 기록이 모두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무렵 고종이 밤마다 전등을 환하게 밝히고 밤을 지낸 것은 분명하다. 왕은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같은 큰 정변을 겪으면서 자신의 주위에서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환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늘 자신의 주변에 20여명의 교부(轎夫)꾼을 대기시켰고, 밤마다 궐내에 전등을 환히 밝히고 새벽까지 전등을 켜두었다고 한다. 때문에 전등에 의한 전력소모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황현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하룻밤 사이에 그 비용이 1,000민[緡; 돈궐미]이나 든다고 탄식하고 있다.⁴⁾

궁궐의 전등설비는 그 시설의 유용성과 근대화의 기반 조성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궁궐의 전등 사용을 위한 과도한 비용은 결국 백성의 고혈(膏血)을 짜내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사진 및 자료
 - 《고종실록》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 기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매천야록》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사진 ⑤ 전등 및 전화사업 요청 전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26쪽 ⇨ 뉴욕주재 조선명예총영사인 프레이자(Everett Fragar, 厚禮節)가 1884년 4월 16일자로 푸트 미국 공사에게 에디슨의 조선에서의 전등 및 전화사업의 독점권 신청을 요청한 전문(電文)이다.
 사진 ⑥ 프레이자 위촉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26쪽 ⇨ 경복궁의 전등설비를 주문받고 에디슨이 1885년 6월 4일자로 프레이자를 에디슨전등시스템의 조선총대리인으로 임명한 위촉장이다.
 사진 ⑦ 전등교사 패인의 임용 및 급여통지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27쪽 ⇨ 조선정부가 프레이자에게 보낸 통지서로서, 패인을 경복궁 전등교사(전기등 기관수)로 임용한다는 것과 그 급여 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4월 3일~5월 23일 조
 3) 正月, 上晝寢, 夢光化門倒, 惵然驚悟, 大惡之, 以二月移御昌德宮, 卽繕東宮, 會南警日急, 而土木之巧愈競焉, 每夜燃電燈, 召優伶奏新聲艷曲, 謂之阿里娘打令, 打令演曲之俗稱也, 閔泳柱以原任閣臣, 領衆優, 專管阿里娘, 評其巧拙, 頒尙方金銀賞之, 至大鳥圭介犯闕而止, 황현 저·김준 역, 《매천야록》 권2, 교문사, 1996, 266~267쪽.
 4) 황현 저·김준 역, 《매천야록》 권1, 교문사, 1996, 203쪽